09-51호

Regional Economic Focus

KIEP 지역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09년 11월 11일
ISSN 1976-0507 Vol. 3 No. 51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나 수 엽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3460-1072)

▣ 중국의 녹색성장 구상은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과 2007년 '과학적 발전관'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최근 중국정부는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신재생가능에너지 육성, 녹색금융제도, 기후변화 대응 및 CDM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신재생가능에너지와 CDM 사업 분야가 가장 활발하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풍부한 시장잠재력으로 볼 때 향후 발전 여지가 큼.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산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공급부족 등의 조건하에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기존 화석연료만으로 에너지소비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에서도 녹생성장 전략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중국 내 에너지 사용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분야의 발전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가. 추진 배경

■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녹색성장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1)]

■ 개혁 · 개방 이후 지난 30년간 중국경제는 전 세계에서 이례적인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 고도성장 이면에 심각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됨.

- 네덜란드 환경평가국(NEAA)의 보고서[2)]에 따르면 2007년 세계 CO_2 배출량은 중국 24%, 미국 21%, EU-15개국 12%, 인도 8%, 러시아 6% 순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떠오름.[3)]

○ 또한 전국 강, 하천의 70%가 오염될 정도로 수질오염 상태가 심각하며 쓰레기 매립 및 유해 폐기물로 인해 토양오염도 발생하고 있음.

- 중국은 경제발전과정에서 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부족국가로 전환되었는데, 특히 석유 및 석탄의 공급부족 현상이 크게 우려되고 있음.[4)]

표 1. 중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1978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에너지 (백만 표준탄)	생산	628	637	1,039	1,290	1,290	20,59	2,354	2,611
	소비	571	603	987	1,312	1,386	2,247	2,655	2,856
	과부족	57	34	56	-22	-96	-188	-301	-245

자료: 『中國統計摘要 2009』.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바, 중국 역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녹색

1) 녹색성장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이는 *Economist*(2000. 1. 27)에서 최초로 언급되었으며, '아 · 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 2005년 서울 개최)' 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SI)" 가 채택되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됨.
2) NEAA(2008. 6. 13), 「Global CO2 emissions: increase continued in 2007」.
3) 중국은 약 8%의 CO_2 배출 증가를 보이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2/3를 차지함.
4)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중국의 석유 및 석탄은 각각 1995년, 2006년부터 공급 부족에 직면함.

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 중국정부는 2008년 11월 발표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재정투자 중 3,500억 위안(총 경기부양 규모의 약 8.8%)을 생태환경 건설에 대한 투자로 책정함.

○ 이외에도 인프라 건설 및 지진복구 사업 중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를 포함할 경우 녹색성장 관련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중국의 경기부양 자금의 34%가 녹색투자이며 이는 한국(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5)]

나. 녹색성장 발전 방향 및 목표

■ 개혁·개방 이후 요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모델 방식에 의존하여 고도성장을 이룬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친환경 성장방식으로 전환을 시작함.

-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 쥐(경제개발)만 잘 잡을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 녹색 고양이가 아니면 쥐를 잡는다고 해도 좋은 고양이가 아니다라는 ‘녹묘론(綠苗論)’으로 전환하고 있음.[6)]

■ 중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구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이하 11·5 계획)」와 ‘과학적 발전관’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함.

- 2006년 발표된 11·5 계획은 자원절약형 및 친환경 사회건설을 통해 지속성장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발전방향으로 설정하고, 제11차 5개년 기간(2006~10년) 동안의 에너지·환경 관련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 2010년까지 단위 GDP당 에너지 소비량은 2005년 대비 20%,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은 10%, 공업폐기물은 6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5)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Global Green New Deal*(2009. 9)에서 7개국의 경기부양 자금 대비 녹색투자액의 비중을 밝힘. 이에 따르면 한국(79%), 중국(34%), 프랑스(18%), 독일(13%), 미국(12%), 남아프리카공화국(11%), 멕시코(10%) 순임.
6) 포스코경영연구소 친디아저널(2009. 9), 「친디아와 녹색성장」.

표. 2 제11차 5개년 기간(2006~2010)의 에너지 · 환경 관련 계획

구분	2005년 실적	2010년 계획	
		2006년 실적	계획
GDP 증가율	10.4%	10.7%	7.5%
오염물 배출 총량	3,962만 톤[1]	4,025만 톤(1.6% 증가)	10% 감소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1.225 TCE	1.21 TCE[2](1.23% 감소)	20% 감소
공업폐기물 이용비율	55.8%	-	60%
도시 오수처리 비율	52%	56%	70% 이상

주: 1) 이산화황(SO2 2,548만 톤)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1,414만 톤).
2) Ton Coal Equivalent의 약자
자료: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강요」.

- 중국은 제17차 당대회(2007년 10월)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 을 국가 발전 이념으로 채택함.

○ '과학적 발전관' 은 과거 양적 성장에 치중한 발전 방향에서 벗어나 에너지, 환경 등의 문제도 적극 해결함으로써 조화와 균형,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음.

2.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 현황

■ 중국은 자원과 환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관련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여기서는 녹색성장 관련 주요 법률의 입법 현황과 신재생가능에너지, 녹색금융제도, 이산화탄소(CO_2) 배출 저감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CDM 사업 분야 등에서 중국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가. 관련 법률 제정

■ 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의 제정

- 주요 법률로 「에너지절약법」(1998년 1월 시행, 2007년 10월 개정), 「청정생산촉진법」(2003년 1월 시행), 「재생가능에너지법」(2006년 1월 시행), 「순환경제촉진법」(2009년 1월 시행) 등이 있음.

- 특히 「순환경제촉진법」은 자원 낭비 ·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생산자 위주의 책임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자원절약, 재활용, 폐기물 이용, 재활용 상품의 시장진출 혜택, 인센티브 제도, 관련 법률적 책임의 규정 등인데, 생산과정에서의 폐기물, 폐수 처리 및 물, 전기 등과 일회용품의 낭비를 제한하는 등 환경보호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임.

- 이 밖에 2005년 개정된 「회사법」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에너지 · 환경 분야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에너지 · 환경 관련 시스템 개혁

- 중국정부는 관련 법률의 입법화와 함께 그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산업구조조정 촉진: 에너지 다소비형 · 고오염형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과잉 업종의 신규진입 제한, 소규모 노후 생산설비의 정리 · 도태를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함.

○ 목표책임제도 도입: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삭감의 목표 달성을 정부간부 및 국유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업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음.

나. 신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략 수립

■ 중국은 자원제약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집중하고 있음.

- 중국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은 2006년 「재생에너지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2007. 8), 「재생에너지발전 11차 5개년계획」 (2008. 3)을 근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발전목표를 확정함(표 3 참고).

○ 에너지 전체 소비량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0년까지 10%, 2020년까지 15%로 확대할 것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설정함.

○ 중점 발전분야는 수력, 바이오 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으로 중국은 2020년까지 수력발전 3억kW, 풍력발전 3,000만kW, 바이오매스 발전 3,000만kW, 태양에너지 발전 180만kW로 확대할 계획임.

○ 동시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년까지 국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설비 능력의 확충, 2020년까지 중국 독자기술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함.

표. 3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에너지 분류	발 전 목 표
수력 에너지	• 전국의 발전설비 용량을 2010년에 1.9억kW(대형 · 중형이 1.4억kW, 소형 5,000만 kW), 2020년에 3억kW(대형 · 중형이 2.25억kW, 소형 7,500만kW)로 증대
바이오 에너지	• 바이오매스 발전, 메탄가스, 바이오매스 고형연료 및 액체연료를 중점적으로 향상시킴. – 바이오매스 발전: 발전설비 용량을 2010년에 550만kW, 2020년에 3,000만 kW로 확대 – 바이오매스 고체성형연료: 연간 이용량을 2010년에 100만 톤, 2020년에 5,000만 톤으로 확대 – 메탄가스: 연간 이용량을 2010년에 190억m^3, 2020년에 440억m^3으로 확대 – 비곡물원료 에탄올: 연간 이용량을 2010년에 200만 톤, 2020년에 1,000만 톤으로 확대 – 바이오 디젤오일: 연간 이용량을 2010년에 20만 톤, 2020년에 200만 톤으로 확대
풍력 에너지	• 전국의 발전설비 용량을 2010년에 500만kW, 2020년에 3,000만kW로 확대 • 동부연안지역과 동북3성을 중점지역으로 30개 정도의 10만kW급의 대형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강소 · 하북 · 내몽고에 100만kW급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함.
태양광 에너지	• 태양광 발전: 전국의 발전설비 총용량을 2010년에 30만kW, 2020년 180만kW로 확대. 국경지대에의 배려와 도시에 추가 공급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을 추진 • 태양에너지 열이용: 전국 태양열 온수기의 집열면적을 2010년에 1.5억m^2, 2020년에 약 3억m^2로 확대. 연간 대체에너지량을 2010년 3,000만 톤(표준 석탄환산), 2020년 6,000만 톤(표준 석탄환산)으로 확대
기타	• 지열에너지와 해양에너지 발전을 적극 추진 • 지열에너지의 연간 이용량을 2010년 400만 톤(표준 석탄환산), 2020년에 1,200만 톤(표준 석탄환산)으로 확대 • 2020년까지 10만k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

자료: 大和総研(2007).

■ 현재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 초안을 심사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바, 이 계획의 핵심은 이미 확정된 신에너지 발전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데 있음.

–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에서 중국은 풍력, 태양광의 발전용량 목표치를 기존 목표치보다 각각 5배, 11배 상향조정함.

– 또한 상향조정된 목표치 달성을 위해 향후 3조 위안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

표. 4 주요 신재생에너지 부문별 발전용량 목표 재설정 및 투자액

(단위: kW)

발전 부문	2005년	2010년	2020년 (기존목표)	2020년 (재설정)	투자액 (억 위안)
수력	1억 1,700만	1억 9,000만	3억	3억	13,000
풍력	약 130만	500만	3,000만	1억 5,000만	9,000
태양광 발전	약 7만	30만	180만	2,000만	1,300
바이오 에너지	약 200만	550만	3,000만	3,000만	2,000

주: 기존목표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이며, 재설정 목표치와 투자액은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 초안을 근거로 함.

자료: KIEP 북경사무소(2009),「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과 신에너지산업의 문제점」, 중국경제현안 브리핑 제09-13호; LG경제연구원(2009. 8),「중국판 '녹색성장'의 남다른 의미」, Weekly 포커스 등.

■ 이와 아울러 현재 중국은「12차 5개년 에너지계획」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문 발전이 핵심내용임.

-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에너지소비 중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점차 증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과학기술 촉진을 통해 중국 특색의 신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고 '에너지 대국' 에서 '에너지 강국' 으로 도약

■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및 세금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7)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전력관리감독회의 발표(2008. 11)에 따르면 총 19억 5,400만 위안의 보조금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부문에 지급되었는데, 이 가운데 71%(13억, 8,200만 위안)가 풍력발전 보조금으로 지급됨.

- 중국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 일반적으로 17%의 부가가치세와 33%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8)

7) 에너지경제연구원(2009),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시사점」.
8) 바이오가스,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각각 13%, 8.5%, 6%이며 소득세율은 각각 15%, 15%, 0%임.

다. 녹색금융제도

■ 2007년 이후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9]은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감독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녹색신용대출, 녹색보험, 녹색증권 등 "녹색금융" 제도를 잇달아 시행하고 있음.

- 녹색금융은 환경금융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다양한 금융수단과 연계하여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친환경 금융제도를 의미함.

○ 중국정부는 녹색금융제도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에너지 절약, 배기가스 감축 등 자원절약과 친환경 사회 건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녹색신용대출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리스크가 큰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을 억제하는 제도임.

-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환경보호총국으로부터 환경오염 유발 기업으로 지정된 명단을 각 상업은행에 전달하고, 그 중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업의 은행대출을 제한함.

■ 녹색보험제도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높아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배상하게 하는 것임.

- 과거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관련 오염처리 비용을 지불함.

- 그러나 갑작스런 환경오염 사고가 발행했을 경우, 녹색보험제도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과 오염처리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함으로써 기업은 파산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며, 정부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음.

- 중국정부는 2008년 2월 시범적인 시행을 거쳐 2015년까지 제도적 완비를 구축할 예정임.

■ 녹색증권은 화력발전, 철강, 레미콘, 화공, 유화, 석탄, 건설자재, 제지 등 오염도가 높은 13개 업종에 속한 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사전에 환경보호 관련 심의 또

9) 중국은 국무원 기구 개혁(2008. 3)에 따라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환경보호부로 승격시켜 에너지 및 환경정책 관리 기능을 강화함.

는 환경보호 기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임.

- 국가환경보호총국은 현재 중국 자본시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아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앞으로는 고오염 · 에너지다소비 업체들이 기업공개를 하거나 융자를 받을 때 환경당국의 사전 승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함.

표 5.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구분	도입시기	주요 내용
녹색신용대출	2007년 7월	'환경보호 정책 법규 시행을 통한 신용대출 리스크 예방에 관한 의견' 을 통해 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제한
녹색보험	2008년 2월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관한 지도 의견"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을 강조
녹색증권	2008년 3월	고오염 업종의 기업공개때 환경보호 심사 의무화

라. 기후변화 대응

■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국마다 경제발전 수준 단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부담해야 할 책임에도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즉 선진국이 지금의 경제발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만큼 감축 책임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임.

○ 따라서 중국은 기후변화와 관련, 어떠한 구속적이고 강제적인 삭감목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본 입장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방안(2007. 6)' 에 잘 드러나 있는바, 기후변화의 대응 원칙과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지속가능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임.

○ 기후변화는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임.

- 선진국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대응. 다만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차별화된 책임을 주장함.

-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를 핵심 시스템으로 삼아 확실하게 준수해 나갈 것을 요구

-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함.

■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2009. 9)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발표하지 않고 2020년까지 2005년에 비해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함.

마.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10)]

■ 중국정부는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잠정방법」의 시행(2004. 6)으로 2004년 11월 처음으로 CDM 프로젝트를 승인한 데 이어 2005년 10월 「CDM 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을 정식 발표함으로써 CDM사업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

- 또한 2006년 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에 CDM 관리센터를 설치하고 CDM 프로젝트 관리를 보다 강화함.

■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부문 등에 중점을 두고 CDM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11)] 그 결과 세계 최대 CDM 사업국으로 부상함.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CDM 통계에 따르면 UNFCCC에 등록(2009년 10월 26일 기준)된 CDM 프로젝트는 1,868건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많은 649건(전체의 34.7%)임.[12)]

■ 2007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CO_2 배출국이 되었으며, 2030년에는 전세계 배출량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의 CDM 시장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0) CDM은 UN 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11)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수력, 풍력, 태양광, 조력, 바이오매스 등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는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고효율 자동차 엔진, 시멘트 생산 공정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용, 쓰레기 매립을 통한 메탄가스 회수 및 이용 등임.
12) http://cdm.unfccc.int/Statistics/index.html

- 여기에 경제회복세와 에너지 수요 확대 등의 요인이 덧붙여져 중국의 CDM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임.

- 이에 따라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중국 CDM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시사점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지난 30년간 고도성장의 산물로 야기된 환경오염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조건하에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음.

- 즉 환경오염과 자원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기존 화석연료만으로 에너지소비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도 녹색성장 전략은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따라서 중국의 녹생성장은 성장중심 기조의 퇴조라기보다는 질적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높은 시장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산업은 발전 여지가 매우 큼.

- 특히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맞물려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녹색성장정책 추진으로 중국 내 에너지 사용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특히 자원낭비 및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생산자 위주의 책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순환경제촉진법」이 200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로 임금상승 및 노무관리가 현지 진출기업들에게 최대 경영리스크로 인식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환경규제로 인한 리스크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13)

- 이러한 새로운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대중 투자기업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할 것인바, 준법경영을 강화함은 물론 최근 중국 내 높아진 환경의식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친환경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한편, 중국의 녹색성장 관련 산업의 발전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

- 특히 발전 잠재력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유망함.

○ 이 가운데서도 최근 100% 이상의 발전용량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풍력분야와 중국이 아직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태양전지 분야가 가장 유리한 분야로 파악되고 있음.

-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중국의 CDM 사업에 대한 진출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은 역설적으로 CDM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CDM 사업 진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폐기물 처리 및 이용 등의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KIEP

---

13)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북경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각종 환경규제가 심해졌으며, 이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밝힘.